

다양한 약물 기전을 연구해 질병을 치료한다



전해민 이사는 2020년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한미약품 R&D센터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해민 한미약품 R&D센터 이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자격을 획득하고 KAIST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했다. 미지의 영역인 뇌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뇌종양에 대한 기초의과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박사과정 중에는 뇌종양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모세포종 연구에 몰입했다. 수련기간 동안 500례 이상의 뇌수술에 참여하고 임상 데이터를 연구하며 쌓은 임상경험에 기초의과학 지식과 연구경험이 더해지며 그의 연구는 더욱 풍성해졌다.

박사과정 수료 후에는 그의 장기 목표인 신약 개발을 위해 생명과학 관련 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으로 진로를 정했다. 하지만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민 이사의 목표는 한결 같다. 의학 연구와 진료로 질병을 치료하고 인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레지던트, 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 KAIST 교원 창업기업인 소바젠 연구원을 거쳐 한미약품 R&D센터 이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변함없이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중에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점점 커져갔다. 한창 연구에 몰두해야 할 박사과정 2년차에 식구가 넷으로 늘면서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 전해민 이사는 다행히 아산재단의 장학사업을 떠올렸고, 아산장학생에 선발돼 2년간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가장 절실한 순간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아산재단의 장학금은 장학생 후배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는 2024년 4월 열린 의생명과학분야 아산장학생



2024년 4월 아산장학생 간담회에서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멘토로 참여한 전해민 이사.



다양한 약물의 기전을 파악하는 연구에 대해 설명하는 전해민 이사.

간담회에 “아산장학생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한 자리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기꺼이 참여했다.

후배들의 진로 결정에 길잡이가 되고 싶은 마음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간담회를 앞두고 전해민 이사는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이 마주했던 답답함을 떠올렸다. 국내에는 임상과 기초의학을 두루 경험한 후 기업에 입사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전해민 이사 역시 박사학위 취득 후 진로를 정하고 아내를 설득하기까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우연한 기회에 제약사에서 의사를 채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제약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동안 쌓은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물어볼 사람을 찾기 힘들었어요. 본보기가 없었던 거죠. 결국 회사 대표님들, 연구소장님들 등을 술하게 찾아다니며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진로를 결정했는데요. 후배들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고, 전해민 이사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으로 후배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는 “아산재단의 장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모습을 지켜봐왔는데, 저도 동참하게 되어 뿌듯하고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것

전해민 이사는 한미약품 입사 후 다양한 약물의 기전을 파악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나 증세를 찾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에 대한 약물부터 비만 치료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물들을 대상으로 신경외과 분야의 질환도 탐색 중이고요. 진로는 달라졌지만 의과대학에 진학하며 품었던 인류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전해민 이사는 기업에서 일하는 장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환자의 삶을 더 좋게 바꾸는 것도 의미 있지만, 좋은 약물을 개발해 수백만 명의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글 최주연